

유형론의 시각에서 본 한국어 격의 몇 가지 논점*

송경안 · 이은하**

(전남대 · 조선대)

Song, Kyung-An & Lee, Eun-Ha. (2020). Some issues of the Korean case considered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8(2), 15–28. This paper examines some issues of the case description of Korean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As a base of the discussion we explore the origin of the term ‘case’ in the European tradition and compare this with the terms of Korean grammar. The term ‘case’ originated from the Greek word ‘ptosis’ which means ‘fall’, a spatial concept. In Korean grammar several terms were proposed. But they are all functionally defined, rather than spatially. In the European tradition the case was restricted to nominal functions which are marked by the inflectional forms. But this definition cannot be applied to Korean in which the nouns are not inflected. We need a broader definition of ‘case’. The European cases might be classified as ‘inflectional case’ thereby. In Korean cases are marked by the postpositions and there are so many postpositions with diverse functions that it is not easy to specify the exact number and kinds of cases. Depending on grammarians the number of cases in Korean varies from two to twenty four. This paper suggests that we do not need to restrict the number of cases in Korean. Finally we examine three individual cases of Korean grammar and the results suggest as follows. Beside the postposition ‘-i/-ga’, the topic marker ‘-eun/-neun’ should be counted as a nominative marker. The adverbial case is not an appropriate categorization of case. The cases which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should be counted as separate ones. The predicative case marker ‘-ida’ corresponds to the copula in language typology, and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case marker.

주제어(Key words): 격의 정의(definition of case), 굴절격(inflectional case), 무격 언어(caseless language), 부사격(adverbial case), 서술격(predicative case), 한국어의 격(Korean case)

1. 서론

개별언어의 문법기술은 해당 언어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품사 분류만 하더라도 언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송경안, 2019, p. 112 참조). 예를 들면 한국어 표준문법에서는 접속사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언어의 문법기술이 언어유형론이나 언어보편론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성이 있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한국어 문법기술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인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서 격 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점들을 검토하려고 하며 이로써 한국어에 대한 유형론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격과 관련된 용어들의 어원과 한국어 문법의 관련 용어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언어학 관련 사전이나 이환묵 (1999), 이광정 (1999) 등에 어느 정도 소개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이면서도 이 선행연구들에서 다소 소홀히 되었다고 판단되는 Wackernagel (1926), Sittig (1931), Hiersche (1956), Pinborg (1975) 등 독일 및 유럽 학자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어원은 유형론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는 격에 대한 기초적 논의로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 포함시킨 것이다.

인간 언어에 나타난 격 현상을 보편론적 입장에서 기술하기 위해 적절한 격의 정의를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제3장은 이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어의 격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특성상 격을 분류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닌바 제4장은 유형론의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어 표준문법이 설정하고 있는 개별 격 가운데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언어유형론과 한국어의 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교신저자: 송경안, 공동저자: 이은하

데 유형론 및 보편론적 관점에서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주격, 부사격, 서술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격의 어원과 한국어 용어

격(cas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동사 *casus*에서 유래하였으며 이 용어는 다시 ‘떨어지다(fall)’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ptosis*를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인들이 왜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Sittig, 1931; Barwick, 1933; Hiersche, 1956; Pinborg, 1975; Blake, 1994; 이환묵, 1999 참조). 원래 그리스어 *ptosis*(‘떨어지다’)는 명사뿐 아니라 동사 변화에도 적용되던 개념이다. 문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성분, 즉 명사(*onoma*)와 동사(*rhema*)의 기본형태가 있고 이에 대한 변화형태를 *ptosis*라고 불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사의 주격(nominative)과 동사의 1인칭/단수/직설법/현재형을 표준형태 혹은 기본형태로 보았고 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떨어진 것’, 즉 *ptosis*라고 하였다 (Hiersche, 1956, p. 7). 이 ‘떨어진/벗어난 형태’는 명사와 동사에 모두 해당하며 명사의 경우 주격에서 벗어난 격을 말하고, 동사의 경우 1인칭/단수/직설법/현재형에서 벗어난 각종 인칭, 수, 서법, 시제에 따른 형태를 말한다 (Pinborg, 1975, p. 76). 이에 따르면 명사에서 소유격, 여격, 대격만 *ptosis*(‘벗어난 형태’), 즉 격(case)에 해당하며 주격은 *ptosis*가 아니기 때문에 ‘격’이 아니었다.

이후 BC 3세기 무렵부터 스토아 학파에 의해 이 *ptosis*라는 용어가 명사 격변화에 한정되어 쓰였고 주격도 함께 격에 포함되었다 (Sittig, 1931, p. 3; Pinborg, 1975, p. 77; Blake, 2009, p. 14). 이 과정에서 주격을 기준/표준이 되는 격으로 직격(*casus rektus*; upright case)이라고 하였고 이 표준에서 벗어난 다른 격들을 사격(*casus obliqui*; oblique cases)이라고 하였다. 즉 주격은 기준이 되는 표준형태로서 ‘똑 바로 서 있는’ 개념으로 표현되었고 다른 격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비스듬히 있는’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다 (Wackernagel, 1926, p. 15). 원래 *ptosis*는 표준형에서 벗어난다는 형태적 개념으로 쓰였는데 스토아 학파에 이르러 ‘수직과 경사’라는 공간적 개념을 빌어 은유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Sittig (1931, p. 20)은 이때 ‘떨어짐’을 주사위나 ‘복술 관절뼈(Astragal)가¹⁾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주사위가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듯이 명사의 격도 떨어지는 양상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때 주사위의 6개의 면 가운데 위아래 2개의 면은 기준이 되는 면이고 나머지 4개의 측면이 있는데 이 측면이 사격(oblique case)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Sittig가 ‘격’을 ‘주사위가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사위는 수직으로만 떨어지며 이는 ‘declension’, 즉 기울기(격변화)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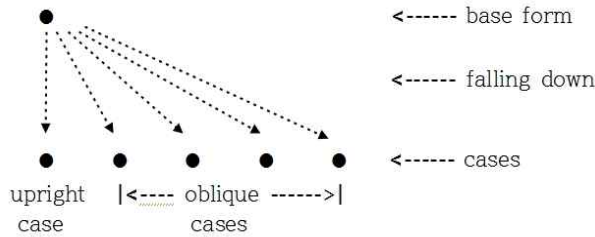
Blake (1994, p. 19)는 *ptosis*(‘떨어지다’)를 “falling away from an assumed standard form”(기본형에서 떨어져 나감)의 의미로 해석하고 명사류의 격변화에 ‘declension’(기울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았다. 즉 그는 ‘떨어진다’를 기본형으로부터 떨어진다 또는 기본형과 달라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Blake의 해석은 위에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ptosis*(‘떨어지다’)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역시 ‘기울기’(declension)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격(case)의 어원에 대한 설명으로 설득력이 있으려면 격과 관련된 4가지 기본 개념, ‘떨어지다’(fall), ‘기울기’(declension), ‘수직’(upright), ‘경사’(oblique)를 함께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학자들의 의견은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석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Hiersche (1956, p. 9)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ptosis*(‘떨어지다’; 격)를 “명사가 문장 안에서 떨어지는 형태”(die Form, in welche das Nomen im Satze gerät)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문장을 형성하는 2가지 기본적인 성분을 명사와 동사라고 할 때 이 가운데 명사가 사전에서 나와서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문장 안에 들어갈 때는 명사는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떨어지는 방식’이 격인 것이다.

이를 도식화 해 보면 [그림1]과 같다. 이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명사가 직격(주격; *casus rektus*)이 되고 그밖에 비스듬히 떨어지는 명사들은 모두 사격(*casus obliqui*)이 될 것이다. 원래 *ptosis*(‘떨어지다’)는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켰으므로 이에 따르면 [그림1]에서 ‘upright case’가 표준이 되고 ‘oblique case’가 *ptosis*에 해당한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에 와서는 주격도 *ptosis*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그림과 같이 사격들과 함께 하나의 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ptosis*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이미 주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했다 (Hiersche, 1956, p. 8; Pinborg, 1975, p. 76). 이 경우 [그림1]처럼 문장에 들어오기 전의 형태가 기본형(base form)이 되고 일단 문장에 들어오면 *ptosis*, 즉 격(case)이 될 것인데 이는 오늘날의 격 개념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하겠다.

1) 고대 그리스에서 점을 칠 때 사용하던 동물의 관절뼈를 말한다. 관절뼈에는 여러 면이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 관절뼈를 위로 던져서 어느 면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 길흉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국어 문법에서는 ‘case’에 대해 ‘격(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이미 국어 문법 연구 초창기의 김규식 (1908)에 나타나며 이후 이는 이필수 (1923), 홍기문 (1927), 박상준 (1932), 박승빈 (1935), 박종우 (1946), 이희승 (1949), 이승녕 (1956) 등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밖에도 ‘위격’ (유길준, 1904)이나 ‘격위’ (김희상, 1911) 또는 ‘체격’(남궁억, 1913), ‘자리’ (최현배, 1937), ‘빛’ (정렬모, 1946)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광정, 1999 참조).



[그림1: 격 어원의 도식]

최현배 선생 (1937, p. 613-624)는 ‘자리’가 영어의 ‘case’를 번역한 것이라고 하고, ‘자리’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공간상의 위치를 뜻하기도 하고 직무상의 지위 혹은 직(職)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문법에서 ‘자리’는 후자의 의미라고 하였다. 최현배 선생은 또 주시경 선생이 (일본어 문법의) 격(格)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같은 책, p. 624). 정렬모 선생 (1946)의 ‘빛’이라는 용어는 ‘하얀 빛, 붉은 빛’ 등의 표현에서와 같이 ‘빛깔’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모든 단어는 ‘꼴(형태)’과 ‘빛’이 있는데 단어들이 문장 가운데 들어가서 차지하는 자리(기능)가 곧 ‘빛’이라고 하였다. 이때 ‘빛’은 명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포함한 모든 단어에 해당한다 (이광정, 1999, p. 35 재인용). 이러한 국어 문법의 용어들은 모두 명사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며 원래 ‘격’의 어원이던 ‘떨어지다’는 개념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우리말로 격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격’이라는 이 용어가 초창기 국어학자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닌 듯 하며 당시 일본어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²⁾ 한편 ‘격’의 어원과 관련하여 최현배 선생 (1937, p. 613)은 영어의 ‘case’가 원래 ‘경우’라는 의미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격’의 어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3. 격의 정의와 한국어

격이란 문장 가운데서 나타난 명사의 기능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엄격한 정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현대 언어학에서 격에 대한 고전서라고 할 수 있는 Blake (1994)는 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ase is a system of marking dependent nouns for the of relationship they bear to their heads. Traditionally, the term refers to inflectional marking, and, typically, case marks the relationship of a noun to a verb at the clause level or of a noun to a preposition or another noun at the phrasal level (Blake, 1994, p. 1).

이에 따르면 격은 ‘전통적으로 격변화 어미에 의한 경우로 한정되고’ 동사가 지배하는 명사와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그리고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 명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영어는 주격-소유격-대격의 3격 체계 언어가 되고 독일어는 주격-소유격-대격-여격의 4격 체계 언어가 된다. Blake (1994)는 위의 격 정의에서 ‘전통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가 말한 이 ‘전통’은 유럽의 전통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핵어를 가질 수 없는 호격 (vocative)은 격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격’에 대해 본 연구는 ‘굴절격’(inflectional case)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유럽의 학문적 전통을 감안해서 ‘좁은 의미의 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1a-c)는 독일어에 나타난 3가지 유형의 굴절 격에 대한 예이다.

2) 최현배 선생 (1937, p. 614)는 영어의 ‘case’를 일본어 문법에서 ‘격’으로 번역했다고 하였다.

- (1) a. D-**ie** Frau traf d-**en** Mann. (동사의 지배)
the-NOM woman met the-ACC man
'The woman met the man.'
- b. Der Frau arbeitet in d-**em** Büro. (전치사 지배)
the-NOM woman works in the-DAT office
'The woman works in the office.'
- c. D-**er** Sohn d-**er** Frau ist nett. (소유격)
the-NOM son the-GEN woman is kind
'The son of the woman is kind.'

위와 같은 Blake의 정의는 굴절어인 유럽 언어³⁾ 중심의 정의로서 명사류의 굴절이 없는 한국어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무격 언어(caseless language)가 된다. 이 정의에서 격이란 결국 '굴절 형태소로 표시되는 명사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굴절어가 아닌 교착어나 고립어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따라서 언어유형론 및 언어보편론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쓸모가 없는 정의가 되고 말 것이다.

굴절격의 발달과 관련해서 언어유형론은 한 가지 흥미로운 일반화를 관찰하였다. 즉 개별언어에서 굴절격이 발달하는 데는 일정한 위계(hierarchy) 혹은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굴절격은 주격이며 이어서 대격, 소유격, 여격, 탈격, 처격, 도구격 순서로 나타난다. 개별언어에서 이러한 위계에 따라 격이 발달한 예를 보면 (2)와 같다 (Blake, 1992, 1994; Primus, 1999; 송경안·오윤자, 2005, p. 147 참조).

(2) 굴절격의 위계⁴⁾

- a. 3격 체계(영): 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 b. 4격 체계(독): 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dative
- c. 5격 체계(라): 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dative, ablative
- d. 6격 체계(티): 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dative, ablative, locative
- e. 7격 체계(산): 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dative, ablative, locative, instrumental

독일의 아프리카 언어 전문가 König (2008)은 격을 Blake (1994)처럼 굴절형태에 한정시키지 않고 조금 넓게 보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전치사 및 후치사, 즉 부치사(adposition)에 의한 명사류의 기능표시도 경우에 따라 격 표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ase is an inflectional system of marking nouns/noun phrases for the type of relationship they bear to their heads. (...) adpositional systems are included only if they encode core participants such as S, A, and O (König, 2008, p. 5).

위 정의에서 핵심성분(core participants)이란 격에 대한 유형론적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3)과 같이 정의된다 (Dixon, 1994; Andrew, 2007). 여기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주어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에 따라 이 두 가지 요소의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핵심성분(Core Participants)

- S: intransitive Subject
- A: transitive subject (Agent)
- O: transitive Object (혹은 P = Patient)⁵⁾

3)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영어를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대 영어는 과거의 굴절체계를 거의 상실한 상태로써 엄밀히 말하면 굴절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와 같이 영어를 3격 체계 언어로 분류하는 것은 대명사에 굴절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아직 굴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4) 영: 영어, 독: 독일어, 라: 라틴어, 티: 터키어, 산: 산스크리트어. 굴절격의 위계에서 호격(vocative)은 제외한다.

5) 학자에 따라 목적어를 P(patient)로 나타내기도 한다 (Comrie, 1978; 1989; Blake, 199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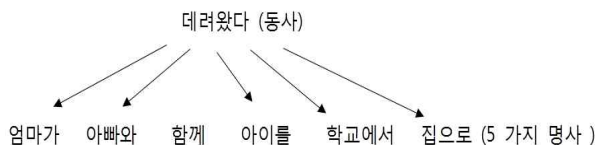
König (2008)는 개별언어에서 (3)의 세 가지 핵심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해당 언어의 격 표시 방법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개별언어에서 격의 수는 이 핵심성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명사류의 기능의 수 만큼이다. 예를 들면 독일어의 경우 이 세 가지 핵심성분이 격변화 어미를 통해 표시되는데 이밖에 소유격과 여격이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4격 체계(주격, 대격, 소유격, 여격)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König (2008)의 격 정의는 Blake (1994)의 정의보다 더 포괄적인 것으로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에도 적용할 수 것이 장점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3)의 세 가지 핵심성분 S, A, O가 모두 부치사, 즉 조사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이 언어의 격표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어의 격의 수는 조사가 나타낼 수 있는 명사류의 기능의 종류 만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틀에서는 중국어와 같이 세 가지 핵심성분이 특별한 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격 언어(caseless language)가 되는데 König는 이점에서 영어도 무격 언어로 간주한다. 영어는 인칭대명사에만 약간 굴절격의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며 전체적으로 관사류나 보통명사의 형태를 보면 굴절어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lake (1994)나 König (2008)은 격을 명시적 표지, 즉 형태를 바탕으로 정의하고 무격 언어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격의 의미가 많이 제한된다. 즉 Blake (1994)는 굴절형태로 표시되는 명사의 기능만 격이라고 하였고 König (2008)는 3가지 핵심성분 S, A, O의 기능이 명시적으로 표시될 때만 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언어유행론적으로 볼 때 격이란 문장 가운데서 명사가 갖는 기능을 말하며 이는 명시적인 형태적 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개별언어는 모두 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무격 언어는 있을 수 없다 (Song, 2001; Andrew, 2007 참조). 다만 격을 표시하는 방법이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때 명사의 위치, 즉 어순도 중요한 격표시 방법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격을 '명사가 문장 안에서 갖는 기능'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기능이란 일차적으로 술어와 관련된 기능들을 말한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성분을 명사와 동사(술어)라 할 때 격이란 술어와 관련해서 명사가 수행하는 기능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4)에서 '데려오다'라는 술어는 5개의 명사를 취하여 문장을 만들었고 이 명사들을 각각 관련 사건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곧 격인 것이다. 언어유행론 및 보편론적 격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 소유격과 호격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술어와 관련된 격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술어격(predicate case)과 비술어격(non-predicate case)을 구분할 수 있겠다.

(4) 술어와 명사의 격



술어격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는 (5)의 독일어 예문에서와 같이 굴절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치사의 격지배 현상이다. 이 독일어 문장에서 *in*이 여격을 요구하는 전치사로서 관사 *dem*이 여격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 *schläft*(‘sleeps’)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5) D-ie Frau schläft in d-em Büro. (전치사 지배)
 the-NOM woman sleeps in the-DAT office
 ‘The woman sleeps in the office.’

전통적으로 격의 논의가 굴절어인 유럽 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이 전치사의 격지배는 중요한 격 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술어격과는 별도의 격 현상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르면 명사의 격은 술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전치사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술어격에 대비해서 후자를 전치사격(prepositional case)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언어보편론의 입장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전치사격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5)의 명사 *Büro*(‘office’)를 전치사격으로 보면 여격이고 형태적으로도 독일어 굴절격에 속하는 여격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문장 전체의 구조상으로 보면 이 명사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서 술어격과 관련해서는 처소격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술어격과 전치사격 사이에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언어유행론에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그냥 덮어두고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해서 술어격을 언어보편

적인 기본격이라고 보고 전치사격은 굴절어에서 나타나는 개별언어 특수현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굴절어의 경우 보통 극히 제한된 수의 굴절격이 발달해 있는데 이들 언어에서 명사가 문장에 들어갈 때는 이 굴절격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인간 언어에서 명사의 기능이 굴절격의 수 정도로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굴절격과 명사의 기능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5)에서와 같이 전치사구에 쓰이는 굴절격이 대표적인 예이다. 엄밀히 말하면 전치사는 굴절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명사의 기능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전치사구에서 기본적으로 굴절격과 명사의 기능이 일치할 수 없다.

4. 격의 분류와 한국어

유럽 문법의 전통에서 격이란 일차적으로 굴절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 격의 수가 언어에 따라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영어는 3격 체계가 되고 독일어는 4격 체계가 된다. 그런데 이 격의 개념이 교착어인 한국어 문법에 도입되면서 격의 분류와 관련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이 나타난다. 굴절격이 없이 명사의 기능이 모두 조사(후치사)로 표현되는 이 언어에서 어디까지를 격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격을 몇 개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학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언어유형론에서도 인간 언어에 몇 개의 격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인간 언어에 나타난 주요격을 (6)과 같이 13개 정도로 보기도 한다 (Blake, 1994, p. 157-160; 송경안, 2019, p. 340).

(6) 13가지 주요격

주격(nominative):	영희가 존다.
대격(accusative):	영희가 사과를 먹는다.
소유격(genitive):	영희의 안경이 예쁘다.
여격(dative):	영희가 철수에게 꽃을 주었다.
처격(locative):	영희는 부산에서 일한다.
탈격(ablative):	코로나가 그에게서 아이를 앗아갔다.
도구격(instrumental):	영희가 칼로 무를 잘랐다.
공동격(comitative):	영희는 영수와 학교에 갔다.
목표격(purposive):	John went for fish.
향격(allative):	영희는 극장에 갔다.
통과격(perlative):	through the building
비교격(comparative):	영희는 순희보다 예쁘다.
호격(vocative):	영희야, 뭐 하니?

한국어 문법에서 격은 학자에 따라 (7)과 같이 2격부터 24격까지 다양하게 설정된다 (이광정, 1999, p. 22 참조). 이 숫자는 부사격에 포함된 격들을 풀어서 계산한 것이다. 부사격을 하나의 격으로 묶어서 계산하면 격의 수는 줄어든다.

(7) 학자에 따른 한국어 격의 수

- 2격: 유길준 (1904), 김희상 (1911)
- 5격: 김규식 (1908)
- 6격: 박종우 (1946)
- 7격: 박상준 (1932), 최태호 (1957)
- 8격: 이필수 (1923), 홍기문 (1947)
- 9격: 남궁억 (1913), 정렬모 (1946)
- 11격: 최현배 (1937)
- 14격: 이승녕 (1956), 교사용 (1964a,b)
- 15격: 박승빈 (1935), 김민수 (1960)

18격: 이희승 (1949)
 24격: 정인승 (1956)

초창기 한국어 문법 학자들이 유럽의 관련 문헌을 얼마나 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길준 (1904), 김희상 (1911) 같은 학자들이 2개의 격만을 구분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2분법, 즉 직격과 사격의 구분을 연상케 한다. (7)에서 교사용 (1964a,b)란 한국국어교육연구회가 출간한 『중학국어문법』, 『고등국어문법』을 말하며 이는 당시 학교문법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표국 국어문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광정, 1999, p. 43). (8)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교사용 문법은 최현배 선생 (1937)의 격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희승 선생 (1949)에서 서술격, 원인격, 자격격 등 3개의 격을 받아들인 것이다(이광정, 1999, P. 22 참조). 부사격을 하나로 묶으면 이 격 분류들은 6격-7격이 된다.

(8) 최현배 (1937), 이희승 (1949), 교사용 (1964a,b)의 격 분류

최현배: 주격, 목적격, 관형격, 호격, 보격, 처소격, 비교격, 사용격, 공동격, 변성격, 인용격(6격/11격)

이희승: 주격, 목적격, 관형격, 호격, **서술격**, 여격, 처소격, 비교격, **원인격**, 사용격, 탈격, 시발격, **자격격**, 변성격, 향진격, 상대격, 동류격, 열거격(6격/18격)

교사용: 주격, 목적격, 관형격, 호격, 보격, **서술격**, 처소격, 비교격, **원인격**, 사용격, 공동격, **자격격**, 변성격, 인용격 (7격/14격)

조금 자세히 보면 (7)에 소개한 국문법 학자들에게는 ‘격의 분류가 유럽 문법에서와 같이 소수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내용적으로 유럽언어 문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10가지 이상의 한국어 격을 설정하면서도 어정쩡한 ‘부사격’이라는 격을 설정해서 형식적으로는 전체 격의 수를 소수에 한정시키고 있다. 최현배 (1937), 이희승 (1949) 선생 두 분도 형식적으로는 6격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문법 전통의 범전이라고 할 수 있는 라틴 문법의 6격을 연상케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한국어에서 격을 몇 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하는 질문과 맞닥뜨리게 된다. Blake (1994)의 정의에 의하면 한국어는 무격 언어에 해당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무리한 주장이다. König (2008)에 따르면 한국어의 조사도 격표지로 볼 수 있는데 그녀는 이러한 언어에서 어디까지를 격표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문법에서 격을 몇 가지로 설정할 것인가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어 문법기술에서 ‘명사의 기능은 모두 조사로 표시된다.’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며 명사의 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마치 영어나 독일어 같은 언어에서 전치사의 기능이 모두 몇 가지일까를 가지고 다투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Wackernagel (1926, p. 301)은 핀란드어에 16가지의 격이 있고 코카사스 지방의 한 언어에는 24가지의 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 언어에 격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한국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언어의 격의 수는 한국어 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어 문법의 격 기술이 참고가 될 것 같다. 즉 일본어 문법에서는 보통 격조사로 쓰이는 조사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기능에 따라 격을 일일이 분류하지는 않는다 (박선옥·양경모, 2008, p. 66 참조; 전남대 이덕배 명예교수 개인면담).

5. 개별 격의 문제

개별언어 문법에서 격을 분류할 때는 그 언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 것이겠지만 언어유행론 및 언어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표준문법의 분류를 중심으로 이러한 개별 격들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표준문법의 격 분류를 보면 (9)와 같이 7격을 구분한다. (9)에서 관형격은 (6)의 소유격에 해당하고 보격, 서술격, 부사격은 (6)에 없는 격이다. 보격은 (6)에서 주격에 포함된다. 이 장은 이 가운데 특별히 유행론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주격, 부사격, 서술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9) 국어문법의 격 분류: 주격, 목적격, 관형격, 보격, 호격, 서술격, 부사격

5.1. 주격

한국어 문법에서 주격과 관련된 문제는 ‘-은/-는’의 문법적 지위이다. 표준 국어문법은 ‘-이/-가’만을 주격조사로 보고 ‘-은/-는’은 격조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국어문법의 입장은 구체적인 언어 상황에서 문제에 부딪힌다. 우선 (10)의 2가지 예문에서 모두 ‘달’이 주어인데 두 문장의 의미/쓰임이 다르며 이 의미를 유지하려면 조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10b)에서 ‘-은’을 주제 표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10) a. 달이 밝다.
- b. 달은 밝다. (총칭적 의미)

(11)-(12)도 이와 비슷한 예이다. (11a)의 영어 문장은 한국어로 (11b)와 같이 번역해야 하며 (11c)로 번역하면 안 된다. 만일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고 ‘-이/-가’만 주격조사라면 (11a)의 번역문으로 (11c)가 가능해야 한다. 한편 (12a,b)의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각각 (12c,d)와 같다. ‘-은/-는’과 ‘-이/-가’ 둘 다 주어표지이며 기능이 다르다는 증거이다.

- (11) a. The sun rises in the east.
- b.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 c.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 (12) a. 개는 짖는다. (총칭적 의미)
- b. 개가 짖는다.⁶⁾
- c. The dog barks.
- d. A dog barks.

그러면 (13)의 예문에 쓰이는 ‘-은/-는’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하나의 조사나 전치사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며 한국어의 ‘-은/-는’ 역시 두 가지 기능, 즉 주어표지와 주제표지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목적격 조사 ‘-을/-를’만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기능으로 쓰인다 (송경안, 2019, p. 350).

- (13) a. 어제는 비가 내렸지.
- b. 철수는 못 보고 영화만 잠깐 보았어.

- (14) 한국어 목적격 조사 ‘-을/-를’의 다양한 쓰임
- a. 엄마는 부산을 갔다.
- b. 엄마가 철수를 책을 주었다.
- c. 한 시간 동안 집 앞을 걸었다.
- d. 그 노인은 10리를 걸었다.
- e. 그 노인은 한 시간을 잤다.
- f. 우리는 지금 산 중턱을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볼 때 한국어에서 ‘-은/-는’이 ‘-이/-가’ 못지않게 자주 주어표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한국어 교육에서 ‘-은/-는’의 범주설정 문제는 학습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가’만 주어표지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15)와 같이 ‘-은/-는’을 써야 할 자리에 ‘-이/-가’를 쓰는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6) ‘우리 집 개가 짖는다.’라는 뜻으로 썼다면 ‘The dog barks.’라고 해야 한다.

(15) 한국어 학습자들의 주어표지 오류의 예⁷⁾

교수: 방학 때 다들 중국에 다녀오는데 넌 안 가나?

학생: *예, 제가 안 갑니다. (예, 저는 안 갑니다.)

한편 (16)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최소적 조사가 주어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 국어문법에서는 이때 ‘-에서’를 특수한 주격조사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는 유형론적으로 볼 때 흥미 있는 현상이다. 이와 함께 (17)의 예문에서 보는 한국어의 주어 구성 방법⁸⁾ 유형론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부분이다 (송경안 외, 2018, p. 151).

(16) a.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b. 우리 학교에서 이겼다.

(17) a. 나로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b. 나라면 그런 일을 앓겠다.

c. 철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d.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학과 MT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5.2. 부사격

언어유형론에서 ‘부사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Blake, 1994; Song, 2001; Andrew, 2007; König, 2008; Malchukov & Spencer(eds.), 2009; Primus, 2011 참조). 현재 한국어 문법의 기준으로 하자면 (6)의 13개 주요격 가운데 여격부터 비교격까지 9개의 격이 모두 ‘부사격’에 해당한다. 최현배 (1937)은 6가지의 부사격을 설정하였고 정부 표준안인 교사용 문법 (1964a,b)는 8가지, 이희승 (1949)는 13가지, 정인승 (1956)은 19가지의 부사격을 설정하였다. 위 (7)의 국어 문법 학자들이 설정한 부사격은 (18)과 같이 모두 29가지이다 (이광정, 1999, p. 22). 국립국어원 (2005)는 부사격을 1차적으로 10가지의 하위부류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17가지로 세분한다. 이처럼 부사격은 적게는 6가지에서부터 많게는 19가지의 격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독립된 격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18) 국어문법 학자들이 설정한 29가지 부사격⁹⁾

공동격, 구격, 동류격, 변성격, 변화격, 비교격, 사용격, 상대격, 시발격, 여격, 연장격, 열거격, 운위격, 원인격, 인용격, 자격격, 재료격, 정도격, 정치격, 종류격, 처소격, 출처격, 치격, 탈격, 통격, 통과격, 표준격, 향진격, 현상격

이 부사격 설정의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격을 부사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언어학 및 언어유형론적으로 아주 부적절한 것이다. 여격은 주격, 소유격, 대격과 함께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부터 내려온 4가지 기본격에 속한다 (Sittig, 1931; Hiersche, 1956; Pinborg, 1975 참조). 언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때부터 인정되어 온 기본격이라는 뜻이다. 문장구조와 관련해서 동사를 분류하자면 기본적으로 자동사(intransitive), 타동사(transitive), 수여동사(ditransitive)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 언어의 보편소(universal)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 4격은 바로 이와 연관이 있다.¹⁰⁾ 이러한 기본 4격의 타당성은 언어유형론적으로도 뒷받침된다. 즉 인간 언어에 나타난 격의 위계를 보면 기본 4격이 우선적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여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2) 참조). 여격을 부사격과 같은 ‘기타 격’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부사격 설정의 문제는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도 나타난다. 장소, 시간, 방향, 도구 등의 표현들이 전통적으로 부사어로 분류되어 왔다. 보충어(complement)와 부가어(adjunct)를 구분하는 현대 언어학의 개념으로 보면 이들은 부가어에 해당할 것이다. 부가어의 특징은 수의성이며 이는 국어문법에서 부사격을 정의할 때 흔히 이용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남기심·고영근, 2014, p. 239, 269; 국립국어원, 2005, p. 76, 417 참조). 그러나 국어문법에서 말한 이 ‘부사격’ 표현들이 항상 수의적

7) 이 예문은 본 연구의 제1저자가 중국인 학생과의 대화 과정에서 직접 수집한 것이다.

8) 익명의 심사자께서 이 문장들을 주어가 생략된 구문으로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이 가운데는 기능은 같고 용어만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10) 기본 4격 가운데 소유격은 이와 연관이 없다.

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현대 언어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부사격’ 표현들이 부가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보충어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19a)의 여격 표현이 대표적인 예이고 몇 가지 예를 더 보면 (19b-e)와 같다.

- (19) 필수적인 ‘부사격’ 표현
- a. 영희가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 b. 영수는 철수와 만났다.
 - c. 영수는 철수와 친하다.
 - d. 영희는 철수와 결혼했다.
 - e. 얼음이 물로 변했다.

남기심·고영근 (2014, p. 287)은 이에 대해 결국 “부사어가 필수적인 것도 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이러한 인식은 이미 1985년의 이 책 초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국어문법의 부사격 및 부사어의 정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부사격 개념의 저변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외에는 모두 부사(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어문법에서 부사격이라는 어정쩡한 개념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의 ‘부사격’ 조사는 모두 별도의 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들을 각각 무슨 격이라고 불러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위 제4장 참조).

5.3. 서술격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볼 때 표준 한국어 문법에서 설정한 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술격 및 서술격 조사이다. 즉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분류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김의수, 2002; 목정수, 1998; 시정근, 2005; 양정석, 2001; 우순조, 2006 참조). 국어문법 분야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남기심·고영근, 2014, p. 252), 이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국립국어원 (2005)는 ‘-이다’를 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필자도 송경안 (2008)과 송경안 (2019)에서 품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 먼저 이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어서 격의 관점에서 ‘-이다’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¹¹⁾

언어유형론적으로 볼 때 한국어의 ‘-이다’는 계사(copula)에 해당한다. 계사란 술어로 쓰이지 않는 말을 술어로 만들어 주는 표현을 말하는데 영어의 ‘be’-동사나 중국어의 ‘是’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표현들이 계사와 결합하는가는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구상의 많은 언어들이 이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무계사 언어도 관찰되고 과거시제에만 계사가 나타나는 언어도 있다 (Schachter, 2007; Dixon, 2010 참조). 계사는 보통 동사적인 성격을 띠며 동사와 같은 형태변화를 하는데 이에 따라 Dixon (2010, p. 159)는 계사를 연결동사(copula verb)라고 불렀다.¹²⁾

한국어의 조사는 부치사(adposition)에 해당한다. 부치사는 명사에 붙어 해당 명사의 기능을 나타내 주는 품사이며 위치에 따라 전치사와 후치사로 구분된다. 한국어의 조사는 당연히 후치사이며 언어학적으로 영어의 전치사와 같은 성격의 어류(word class)이다. 부치사는 대표적인 불변화사이다. 즉 인간 언어에서 어형변화는 명사류의 격변화(declination)와 동사류(술어)의 활용(conjuga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치사는 전치사등과 함께 이러한 어형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어류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의 ‘-이다’는 부치사, 즉 조사가 될 수 없고 언어유형론이 말한 특수한 어류인 계사라고 보아야 한다. 굳이 일반 품사에 포함시킨다면 동사 혹은 용언류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의 ‘-이다’를 조사로 분류하는 것은 영어의 ‘be’-동사를 전치사로 분류하는 것과 같다.

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다’의 문제는 우선 위에서 논의한 부사격과 마찬가지로 언어유형론에서 ‘서술격’이라는 격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계사 구문이나 격에 대한 유형론적 논의에서 ‘서술격’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Blake, 1994; Malchukov & Spencer (eds.), 2009; Pustet, 2003; Schachter, 2007; Dixon, 2010, 제14장 참조). 계사와 결합한 명사에 특별한 격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는 것은 언어유형론의 격의 정의와도 맞지 않다. 위 제2장의 정의에 따르면 격이란 기본적으로 명사와 동사(술어) 사이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다’ 구문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20a)의

1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송경안 (2019) 제12장 참조.
 12) ‘copula’는 어원적으로 ‘join together, bind, link’의 뜻이다.

문장에서 3개의 명사가 있는데 이들이 동사에 대해 갖는 관계에 따라 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20b)의 ‘-이다’ 구문에서 ‘학생’은 그 자체가 서술어이며 이 명사에 격을 부여하는 다른 상위술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에게 격을 부여할 핵어가 없다는 뜻이다. ‘학생’은 오히려 ‘-이다’와 결합해서 술어를 형성한 뒤 ‘수희’에게 주격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 (20) a. 수희가 나에게 책을 주었다.
 b. 수희는 학생이다.

‘-이다’의 격조사로서의 지위는 (21)과 같은 예문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언어유형론에 따르면 계사는 흔히 명사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범주들과 결합하는데 한국어의 경우 (21)의 예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송경안, 2019, p. 264). 이 예문들에서 ‘-이다’와 결합한 표현들을 단순히 명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들이 격을 갖는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21c)의 경우 명사에 이미 처격(locative) 조사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21d)의 조사 ‘-까지’나 (21e)의 조사 ‘-(에서)부터’도 단순한 보조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¹³⁾

- (21) 한국어 계사의 다양한 결합구조
- a. 인간은 누구나 홀로이다.
 - b. 그 사람 별로이다.
 - c. 그게 아마 부산에서였지?
 - d.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다.
 - e. 내가 할 일은 여기에서부터이다.
 - f. 이게 다 너를 위해서이다.
 - g. 감기약을 먹어서인지 졸린다.
 - h. 승미가 언제부터 저러지?
 - 현수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 현수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 현수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국어문법에서는 (21)에서 ‘-이다’와 결합한 표현들을 ‘체인 구실을 하는 표현’이라고도 하는데(남기심·고영근, 2014, p. 252) 이는 아주 적절한 기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들을 체언으로 인정한다면 (22)의 영어 문장에서 ‘from Canada/in Canada/for Mary’도 명사구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다’는 유형론적으로 계사에 해당하며 계사는 다양한 품사 및 범주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유형론의 관찰이다. 우리는 이제 ‘-이다’가 명사와만 결합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어문법에서 (21)의 관련 표현이나 (23)의 ‘낭만적/민주적’과 같은 표현을 명사라고 기술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⁴⁾

- (22) a. John is from Canada.
 b. John is in Canada.
 c. The present is for Mary.

- (23) a. 그 사람은 낭만적이다.
 b. 그 사람은 민주적이다.

6. 마무리

13) 국어사전에서는 이들을 보조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14) ‘낭만적, 민주적’ 등은 기본적으로 관형사의 기능을 하며 주격, 소유격, 목적격 등의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사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형론 및 보편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격 기술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격의 어원은 원래 형태적 개념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은유적인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문법의 관련 용어는 이 어원과 관계없이 명사의 기능을 뜻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격의 개념은 원래 유럽 문법의 전통에서 어형변화에 의한 명사의 기능 표시를 의미했는데 체언류의 어형변화가 없는 한국어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보편적인 격 개념은 형태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되고 기능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한국어의 조사도 격표지에 해당한다. 유럽 언어의 격은 좁은 의미의 격 혹은 굴절격이라 할 수 있겠다. 표준문법을 위시하여 한국어 문법의 격 분류는 대개 유럽 문법의 전통에 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할 것이다.¹⁵⁾ 본 연구는 한국어 문법에서 격을 몇 개로 볼 것인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았다.

이밖에 개별 격 설정의 문제점도 몇 가지 짚어 보았다. ‘-은/-는’을 주격표지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고 부사격은 독립적인 격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부사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격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굳이 격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어의 격은 조사로 표현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서술격의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이미 많은 국어학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유형론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한국어 ‘-이다’는 유형론에서 특별한 문법범주로 설정하는 계사(copula)에 해당하며 유형론은 이를 격표지로 보지 않는다. 본 연구와 같은 논의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한국어의 격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규식. (1908). *대한문법*. 油印本. 김민수·하동호·고영근(편). (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1-14*. 서울: 탑출판사.
- 김민수. (1960). *국어문법론연구*. 서울: 통문관.
- 김의수. (2002). 형식동사 ‘이다’의 문법. *어학연구*, 38(3), 879-905.
- 김희상. (1911). *조선어전*. 경성: 보급서관.
- 남궁억. (1913). *조선문법*. 필사본. 김민수·하동호·고영근(편). (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1-24*. 서울: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 (2014).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박이정.
- 목정수. (1998).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 22, 245-290.
- 박상준. (1932). *개정철자준거 조선어법*. 평양: 동명서관.
- 박선옥·양경모. (2008). 일본어의 격. 투고자·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3* (pp. 65-74). 서울: 월인.
- 박승빈. (1935). *조선어학*. 경성: 조선어학연구회.
- 박종우. (1946). *한글의 문법과 실제*. 부산: 중성사출판부.
- 송경안. (2008). 격의 유형론. 투고자·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3* (pp. 9-53). 서울: 월인.
- 송경안. (2019). *언어의 유형과 한국어 그리고 영어*. 서울: 역락.
- 송경안 외 5인. (2018). *언어의 이해*. (개정판). 신아사: 서울.
- 송경안·오윤자. (2005). 격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41, 127-158.
- 시정곤. (2005).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의함. *한국어학*, 28, 55-80.
- 양정석. (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1), 337-366.
- 우순조. (2006).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들. *언어학*, 44, 79-121.
- 유길준. (1904). *조선문전*. 필사본. 김민수·하동호·고영근(편). (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1-1*. 서울: 탑출판사.
- 이광정. (1999). 전통문법에서의 격 연구. *한국어학회(편)*. *국어의 격과 조사* (pp. 9-48). 서울: 월인.
- 이승녕. (1956). *중등국어문법*. 서울: 을지문화사.
- 이필수. (1923). *정음문전*. 경성: 조선정음부활회.
- 이환묵. (1999). *영어전통문법론*. 서울: 아르케.

15) 제4장에 소개한 학자들 가운데 24격을 구분한 정인승 (1956) 같은 경우 유럽문법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다.

- 이희승. (1949). *초급국어문법*. 서울: 박문사.
- 정렬모. (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서울: 한글문화사.
- 정인승. (1956). *표준 고등말본*. 서울: 신구문화사.
- 최태호. (1957). *중학말본*. 서울: 사조사.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경성: 연희전문대학교 출판부.
-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편). (1964a). *교사용 중학국어문법*. 서울: 향문사.
-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편). (1964b). *교사용 고등국어문법*. 서울: 향문사.
- 홍기문. (1927). *조선문법요령*.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1-38*. 서울: 탑출판사.
- Andrew, A. (2007). The major functions of the noun phrase.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pp. 132-22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wick, K. (1933). Recensione a Sittig (1931). *Gnomon*, IX, 587-594. (재인용)
- Blake, B. (1992). The case hierarchy. *La Trobe University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5, 1-6.
- Blake, B. (1994). *Ca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ke, B. (2009). History of the research on case. In M. Malchukov & A. Spenc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case* (pp. 13-2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mrie, B. (1978). Ergativity. In W. P. Lehmann (Ed.), *Syntactic typology: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language* (pp. 329-394). Sussex: The Harvester Press.
- Dixon, R. M. W. (1994). *Erg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 (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ol. 2: Grammatical top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ersche, R. (1956).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Terminus $\pi \tau \omicron \sigma \iota \varsigma$ "Fall". In R. Hiersche, E. Ising & G. Ginschel (Eds.), *Aus der Arbeit an einem historischen Wörterbuch der sprachwissenschaftlichen Terminologie* (pp. 5-19). Berlin: Akademie Verlag.
- König, C. (2008). *Case in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lchukov, A., & Spencer, A. (Eds.). (2009). *The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inborg, J. (1975). Classical antiquity: Greece. In T. Sebeok (Ed.), *Historiography of linguistics.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13* (pp. 69-126). The Hague: Mouton.
- Primus, B. (1999). *Case and thematic roles*. Max Niemeyer Verlag.
- Primus, B. (2011). Case-marking typology. In J.-J. Song (Ed.),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pp. 303-32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ustet, R. (2003). *Copulas: 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achter, P. (2007). Parts of speech system.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pp. 1-6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ttig, E. (1931). *Das Alter der Anordnung unserer Kasus und der Ursprung ihrer Bezeichnung als 'Fälle'*. *Tübinger Beiträge zur Altertumswissenschaft 13*. Stuttgart: Kohlhammer.
- Song, J.-J. (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London: Longman.
- Wackernagel, J. (1926). *Vorlesungen über Syntax. Erste Reihe*. Basel: Birkhäuser.

송경안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전화: (062) 530-3176
 이메일: kasong@chonnam.ac.kr

송경안 · 이은하

이은하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대학원 한국어 강사

전화: (062) 608-5038

이메일: 2point@hanmail.net

Received on March 14, 202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ly 3, 2020

Accepted on July 21, 2020